

#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직분

김한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신앙의 요점을 가르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하여 설명한 후, 성자 하나님의 위격과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가르친다. 성자에 대해 사도신경은 ‘독생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네 칭호를 사용하는데, 11-13 주일에서는 각 칭호들에 대하여 물고 답한다. 성자의 구속 사역을 잘 설명하는 이 네 가지 칭호들이 각각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진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1문에서는 성자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이어서 32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하여 가르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삼중 직분으로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직분에 참여하는지를 설명한다.

##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르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12주일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는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곧 메시아시라는 것은, 그분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맡은 분이심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성자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는 장면에 성부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이 함께 나온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심을 선언하셨다(삼하 7:14;



PIERO DELLA FRANCESCA 작품  
(1448-50경)

시 2:7).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구약의 메시아들은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부께서는 그에게 성신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마 3:15-17). 예수님께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임명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임명을 받으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신 하나님께서는 임명에 사용되는 기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 임명과 기름 부음을 받으시던 그 자리에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선지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심**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요리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직분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선지자의 직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이다. 이 땅에서의 개인적인 번영이나 행복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고백은 성경의 교훈을 잘 반영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실 때, 모옥과 비단 속에서도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신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마 26:68) 하고 그분의 선지자 직분을 조롱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모욕

을 받으시면서도 자신을 임명하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그 모욕을 다 참고 지나심으로써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고,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눅 13:33).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선지자로서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가르치셨다.

**제사장:**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救贖)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셨고, 또한 그분 자신이 바로 성전이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완성된 것이다. 첫째, 그분은 흠이 없는 제사장이셨다.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부터 속하여야 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히 7:26) 분이시다. 둘째,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리셨다(요 1:29). 일반적인 새끼 양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분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전 5:7).

셋째, 제사장이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또한 친히 제단과 성전이 되셨다(요 2:19-21).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의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지성소로 삼아 성전을 완성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는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왕: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  
시고 보존하심**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일은,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도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졌다. 그때에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요 19:3; 마 27:29) 하면서 조롱하였다. 그가 달리신 십자가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달려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마 27:42)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의 무지한 말에 대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멸시받는 그 자리에서도 왕으로서 한편에 달린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을 행사하셨다(눅 23:43).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마 28:18)를 성부로부터 받으셨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다 이루어졌다(시 2:8; 히 1:5, 5:5; 계 19:15).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동시에 '다윗의 뿌리'로서(사 11:10; 계 22:16), 구약에서도 그분의 직분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다가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왕권의 실체를 다 나타내셨다. 그리고 세상 끝 날까지 교회와 함께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부께로부터 받으신 권세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마 28:20).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도 구원론적으로 해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로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친다.<sup>1)</sup> 이것은 5-6주일에서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구원론적'으로 풀어 갔던 것과 비슷하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세 가지 직분은 동시적이다.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는 일은 왕의 직무이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전제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무이다. 또한 가르치는 내용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와도 연결된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주제로 구약을 해석하여 주셨다. 이것은 선지자로서 고난의 제사장직을 통한 영광의 왕직에 대해 해석하신 것이었다.<sup>2)</sup>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행하신 것은 그 당시의 배경에서 더 생생한 의미를 지닌다. 그분은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을 죽인 사회에서 활동하셨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로마 제국에 뇌물을 주고 봉사하던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일하셨으며, 정당성이 없는 에돔 사람 헤롯이 그 자리에 있던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 세 가지 직분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시대에 성자께서 삼중직을 행하신 것이다.<sup>3)</sup>

**그리스도인의 삼중직**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우리의 선지자'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으로서 행하셨

1) Victor E. d'Assonville, "'Prophet, Doctor Jesus': The Son of God as 'Our High Priest and Teacher' in the Heidelberg Catechism," in J. Payne (ed) A Faith Worth Teaching: The Heidelberg Catechism's Enduring Heritage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3), 184.

2) 유해무, 『개혁교의학』, 343.

3) De Boer, E., 2013, 'Christology and Christianity: The theological power of the threefold office in Lord's Day 12'. In die Skriflig/In Luce Verbi 47(2), Art. #682, 8 pages. <http://dx.doi.org/10.4102/ids.v47i2.682>

다. 세 가지 직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직분인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은 “당신은 왜 그리스도 인이라 불리니까?” 하고 질문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도록 인도한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肢體)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다. 즉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도 그분의 몸으로서 수행하는 삼중직이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선지자이다.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게 된다. 이 세상은 주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마 10:32-33).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또한 말과 행실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 성신께서도 그 전 파하는 일에 함께 증인이 되셔서 복음을 효력 있게 전하게 하신다(행 5:32).

둘째,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31문)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는**” 점에서 제사장이다. 죄를 위한 속죄제나 번제는 오직 유일하신 대제사장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속죄제 이후에 감사의 화목제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의미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지만, 그리스도인은 첫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둘째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라는 의미에서 왕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마귀와 더불어 싸울 수 있다.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죄와 더불어 싸우다가 장차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왕이 되는 것이다.

### 직분자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애써 추구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든 행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모습임을 보게 된다. 32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유세비우스 (260-340)

피조물과 비교함으로써 찾으려 하면 이상승배에 떨어지는 격이 되지만, 우리의 창조주시오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거기서 우리는 자신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신자를 그리스도와 붙여서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고대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라고 불리신다. 그분이 친히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참으로 신성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채우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유형이나 형상을 남겨 주시지 않고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덕목들, 그리고 참된 진리의 교리에 담긴 천상의 삶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sup>4)</sup>

이미 고대교회의 문헌에도 이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적인 성품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채우심을 고백하고 있다. 로마제국이 핍박하던 시대에 신자의 덕목을 지키면서 살아간 '그리스도인'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직분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직분을 행하면서 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직분으로 자신이나 서로를 대하는 개념이 거의 없고, 그보다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들 속에 강하게 침투해 있다. 또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뽕 잡는 것이 매'라는 식의 결과 중심적인 생각이 개인주의적인 풍토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종교개혁의 교회로 서 나가기 위해서는, 직분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고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기

를 배우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집사나 장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종의 전통처럼 되어 버린 이사회에서는 더욱 이러한 교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글 | 김헌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4) 유세비우스, 『교회사』, 1권 3장 12절.